

근거없는 대세론으로는 재집권 할 수 없습니다.

“이인제 후보 불가, 세 가지 이유 있다”

민주당 일부에서 '이인제 필패론(必敗論)' 이 확산되는 조짐이다. 민주당의 쇠신 국면이 끝나가고 본격적인 경선 국면이 시작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진짜 승부다. 싸움의 화두는 누가 후보가 될 것인가이다.

첫째는, 이고문의 본선 경쟁력이다.

호남과 충청의 지역 연합으로 치를 수 있다고 보는 이고문의 '영남포기' 전략은 1997년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쇠신연대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대선 때처럼 이인제 후보의 영남 표 분산효과를 기대할 제3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이인제 학습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논리다.

두 번째는, 정체성 시비다.

민주당은 지난 10·25 보궐선거에서 전패를 했고 서울 두 곳에서 수도권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이반을 확인했다.

동교동계의 전횡과, 언론에 수시로 보도되었던 이들의 비리 혐의가 원인이었는데, 이인제 고문은 그 '당을 망친' 동교동계를 최대 후원 세력으로 하고 있다. 쇠신된 당의 후보로는 이미지에 맞지 않는 셈이다.

한나라당 개혁파의 움직임도 정계 개편에 몸을 실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인제 후보로는 흡인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 민주당 개혁 세력의 판단이다.

세 번째는, '거름 지지율' 공방이다.

이고문 지지 기반은 민주당 텃밭인 호남과 '투표율이 낮은' 20대에 주로 걸쳐 있다.

영남권이라는 배타적 지지기반을 업고 있는 이회창 총재에 비하면 3분된 충청권의 이인제는 역시 힘이 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시사저널〉

**당원동지 여러분!
이제는 결심 할 때 입니다.**

“보수층과 영남은 이인제 택하지 않는다”

- 이인제 필패론 -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은 여권의 경쟁자로 이인제 고문을 상정하고 있으며, 그럴 경우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인제 고문이 여권의 후보가 되면 반드시 패한다는 것이 '이인제 필패론'이다.

이유는 물론 영남에서 표를 얻지 못한다는 것 때문이다.

〈주간조선 2002.1.17〉

걱정 끝!

노무현을 선택하면
재집권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재집권

노무현 이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개혁과 도약을 위한
국민후보 노무현 주대위원회

33424

노무현 필승론 3가지 이유

1. 호남권(민주당지지) 득표 (500만표)
2. 개혁세력과 젊은층 지지 (200만표)
3. 영남권 지지 (600만표)

노무현이 후보가 되면 우리 정당사 최초로
호남권+개혁세력+영남권이 하나가 됩니다.

야당이 되길 원하십니까? 재집권을 원하십니까?

"호남·충청이 합치면 재집권할 수 있다는
이른바 영남 배제론!"

그러나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영남에서 표를 얻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현만이 할 수 있습니다.

호남출신 당원이 중심인 민주당에서
영남출신 노무현을 선택하면
우리 민주당은 전국정당, 그리고 새 시대를 여는
열린 정당이 됩니다.
재 집권을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은 호남을 지키기위해
1990년 3당통합을 반대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을 지키기위해
신3당통합을 반대합니다.**

영원히 호남 고립화를 고착시킬 수도 있는
3당 통합에 노무현은 앞장서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당한 소신으로 1997년 12월,
DJ정권 탄생에 온 몸을 던졌습니다.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로 출마한 지금
호남출신 대의원·당원들의 지지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개혁과 서민의 편에선 민주당과
김대중 정부의 정통 후계자는
노무현 본인입니다.**

지난 1997년 12월 18일, 50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화와 개혁, 서민을 위해 헌신했던
국민회의의 위대한 승리에는 호남출신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노무현이 늘 함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누가 민주당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민주당은 영남출신 노무현을
큰 정치인으로 키웠습니다.**

**이제 노무현이 정권 재창출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를 위해
부산출마를 결행했던 노무현!
놀랍게도 약 40%의 지지를 얻어 냈습니다.
만약 노무현이 집권여당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부산·경남지역의 지지는 50%를 넘어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것 입니다.

5년으로는 나라를 개혁할 수 없습니다.
5년으로는 경제안정과 복지국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민주화 세력이 수십년 동안 자신을 던져 얻은
정권을 다시 수구세력·반개혁 세력에
던져주시겠습니까?
호남당원들의 힘이 합쳐지면 영남출신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합니다.

**노무현을 대통령후보로 만드는날,
호남출신 당원들이
새시대·새정치를 열어갑니다.**